

전남

‘슬로시티 청산도’ 관광 쉬워진다

슬로시티로 지정된 완도군 청산도의 관광지를 한꺼번에 둘러볼 수 있는 순환버스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해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해설사 배치 순환버스 1일 2회 운행 범바위·신흥해수욕장·갯돌밭 등 7곳 돌아



김종식 완도군수(왼쪽부터 7번째)와 박근영 청산면장 등 관계자들이 청산항 물양장에서 ‘청산도 관광지 순환버스’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원도군 제공)

김종식 완도군수(왼쪽부터 7번째)와 박근영 청산면장 등 관계자들이 청산항 물양장에서 ‘청산도 관광지 순환버스’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원도군 제공)

해 관광객들에게 슬로시티 청산도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다. 완도군은 순환버스 개통으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청산도 관광이 가능해짐에 따라 당장 다음달 10일부터 23일간 열리는 ‘2010 청산도 걷기축제’부터 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 자원순환센터 전면 재검토 해야”

경실련, 특정 건설사와 비공개 MOU 특혜의혹 제기

순천시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자원순환센터(환경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최근 시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특혜의혹이 있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237억원의 사업비가 늘어나고, 자본조달능력이 우려되는 특정 건설사와 비공개로 MOU(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 배경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해야 하는데도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돌연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정월박람회 사업비에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목포 연산동에 ‘세라믹 일반산단’

2012년까지 185억 들여

목포시는 고부가가치 첨단 세라믹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산동 일원에 ‘세라믹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목포시는 총사업비 18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2년 상반기까지 삽진산단 입구 대양동 일원 12만3천㎡에 세라믹 일반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세라믹 산단 조성에 나섰다. 목포시 관계자는 “신소재 세라믹 산업의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전남지역의 차세대 핵심사업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순천정원박람회 콜네임 ‘에코지오 2013’

순천시가 추진하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쉽고 친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콜네임(에칭·Call Name)이 ‘에코지오(ECOZIO) 2013’으로 결정됐다. 순천시는 “‘ECOZIO 2013’은 정원박람회의 환경 친화성과 미래 지향성을 전달하기가 쉽고 비주요 표현이 우수한 철자 조합으로서 박람회 이후에도 정원의 브랜드 명칭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해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다. ‘ECOZIO 2013’은 환경·생태 등을 의미하는 ECO, 지구·땅을 뜻하는 GEO, 박람회 개최연도 2013년을 조합한 것이다. 시는 지난 1월 콜네임 선정 용역에 착수해 한국 디자인진흥원에서 제출한 20개의 콜네임 개발안 가운데 4개 안을 1차 후보작으로 선정 한 후 브랜드, 디자인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외국인, 시 공무원의 설문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남의 땅에 길내고 항의하자 강패 동원

고흥 남양면 주민숙원사업 명목 이용자도 농장 운영 한사람뿐

고흥군 남양면이 명장 재량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로포장을 하는 등 불만을 받고 있다. 고흥군 남양면은 지난 2008년 사업비 1천800만원을 들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남양면 월정리 에 폭 3m, 길이 150m의 농로포장공사를 마쳤다.

사람밖에 되지않아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토지 소유주 박모(46)씨가 지난해부터 사업추진 관계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남양면과 A씨는 서로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오히려 A씨는 지난 1월 30일 폭력배를 동원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토지 소유주와 가족을 폭행,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년 발주한 2천만원 이하 공사 79건 가운데 35.4%인 28건을 D건설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1건은 H 건설 18건, K 건설 12건, 나머지 2개 업체가 각각 1건씩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소유자 박 모 씨는 “고흥군은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를 원상복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면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 박 씨와 A씨의 분쟁으로 시작된 만큼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주민숙원사업 추진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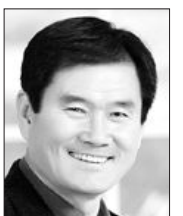
광양 매화문화축제 상춘객 북적. 제 14회 광양 매화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이 14일 상춘객 발길로 북적거리고 있다. '매화(梅花)', 삶과 문화로 다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오는 21일까지 계속된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진도 대파도 지리적 표시제

‘진도 홍주’에 이어 ‘진도 대파’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됐다. 진도군은 “진도 특산물인 ‘진도 대파’가 지리적 표시제 제61호로 등록돼 타지역 대파와의 차별성 확보와 함께 등록명칭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민선 4기 핵심 사업의 하나로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국립 농산물관품관리원의 서류·현지 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지난 12일 국립 농산물관품검사원에 ‘진도 대파’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마쳤다. ‘진도 대파’는 청정 해풍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줄기가 굵고 식이섬유 함량이 많아 대파 특유의 맛과 향이 짙은 것이 특징이다.

순천농협 조합장 이광하 후보 당선

제5대 순천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이광하(62) 후보가 당선됐다. 14일 순천농협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총 투표자 1만2242명 가운데 이광하 전 상임이사(6천189표)를 얻어 전 조합장 조합장(5천822표)을 367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새 조합장 취임식은 다음달 17일이다. (동부취재본부=허태민기자 haggia@)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yosung Public Auction' (효성공인중개사) with contact info T.062-376-4056 and H.010-3128-1515. It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land and buildings, with prices and featur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deung Samil Real Estate' (대인동삼일부동산) with contact info (FAX)223-1772 and 011-602-2532. It promotes high-quality buildings and services in the Suncheon area.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aeyangkwang Power Plant Suburb Housing' (대양광발전소부지구함) and 'Gwangju Jeonnam Power Market' (광주전남권 중형마트구함). It highlights location, size, and price for various housing project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Korea National Real Estate Auction' ((주)국민법률경매). It features a large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contact info.